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5개 시도교육감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IB 프로그램 운영 안정화

전북·서울·인천·충남교육청 등 업무협약 체결

IB 운영 학교 교류 등 교육청 간 공동대응 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 손을 맞잡았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IB와 MOC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이날 세종에서 IB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서울·인천·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이미 IB 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한 대구·제주·경기·전남교육청을 대표한 대구교육

청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IB 프로그램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IB 본부와의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IB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도 재정 분담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원하는 다른 교육청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축, 교원 연수 지원, 공동사업비 분담 등의 협력 체

계가 구축되면서 교육공공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3년 5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와 의형서(LOI)를 체결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북·서울·인천·충남교육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IB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사고력을 키우는 탐구 중심수업과,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논술형 평가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IB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에 충실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교육공무직원 퇴직 이후 삶 설계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 운영

오늘까지 진행 상반기 과정 교육에 5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 올해는 2024년 퇴직예정자 중 희망자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자기 이해, 진로 설계 등의 기회 제공을 통해 퇴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퇴직 이후의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반기 과정은 22~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희망자 50여 명이 참여해 퇴직 이후의 △생활전반 △건강 △인간관계 △자산관리 등의 주제로 생애 설계 기본 교육을 받은 뒤 진로설계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과정은 8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퇴직이 초조함이 아니라 설렘 가득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2기 전북학생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오늘까지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23일 사흘간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제2기 전북학생의회 예비학생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기 전북학생의회는 지난 1월 추천형 의원 40명과 추첨형 의원 10명 총 50명으로 워크숍을 통해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이번 워크숍은 △아이스 브레이킹 △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전북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해 △2023 전북학생의회 운영 사례 및 제안 정책 나눔 △의의 본회의 실습 △분과위원회 조직 등으로 진행됐다. 송복조 김제시장은 "너무 떨리고 신났다. 형, 누나,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진안여중 박은울 당선자는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떨리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동고 이동운 당선자는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의정활동을 하는 전북학생의회의 일원이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대학30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포럼'.

글로벌대학30 사업 혁신과제 이행

전북대, 교육부·전북자치도·한국연구재단 등과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혁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1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대학30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포럼'에 참석,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연구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장,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대 등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진대학 및 참여대학 총장, 해당 권역 광역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별 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대학30 사업 혁신 이행을 구체화했다. 전북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은 "팔 한 톨을 바르듯 만하게 만들어 전북도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달라는 개교 당시 지역민들의 바람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전북대학교의 선한 영향력이 전북지역 내 모든 기업과 가정에 미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도·대학·산업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대학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2024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 지원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전주대 학생취업처는 국고보조금 7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기존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포함한 연간 약 15억원의 사업비로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대학들,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앞으로 맞설 세상, 여러분에 새로운 기회”

전북대, 3784명 학위 수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2일 전대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180명의 박사과 578명의 석사, 3,026명의 학사 등 모두 3,78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좌자 및 학무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졸업생 및 학부모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본부에서 전대학술문화관까지 이어진 학사행렬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양오봉 총장의 졸업식사와 외빈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우수 졸업생에는 상장이 수여됐다. 박진호 학생(사법대)을 비롯한 119명의 학생이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고, 핵심연구상에는 김하연 학생(농생대) 등 42명, 우수연구상에는 임석인 학생(공과대) 등 3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학교가 22일 전대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한 가운데, 양오봉 총장이 졸업식사를 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중앙일보 비수도권 1위, 글로벌30 선정에 빛나는 이곳 건지별에서 인격과 지식을 갈고닦아 최고 지성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랑스런 전대인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맞설 세상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대는 여러분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통문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미래에 대한 열정 가슴 깊이 품고 힘찬 출발 하길”

전주교대, 341명 학위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1일 황학당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수여 △총장 축사 △내빈 축사 △교가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의 축하 영상과 함께 박병춘 총장을 비롯한 유관장 (前)총장, 김우영



(前)총장, 이한홍 총동창회장, 전주국민은행 홍성호 지점장, 각 부서장 등 전주교대 관계자와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사 272명, 석사 69명 등 총 341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 학업 성

적이 우수하고 품행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 공로로 △총장상(우수상/공로상) △도교육감상 △동창회장상 △KB국민은행장상 △한국교총 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박병춘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서 강인함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대학에서 배운 가치와 고민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슴 깊이 품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항상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사회 리더 되길”

호원대, 1131명 학사 학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2일 문화체육관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김영일 군산시 의회의장, 김광규 교육장, 서동석 총동창회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군산시의원들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31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강희성 총장의 훈사를 시작으로 서동석 총동창회장, 김영일 군산시 의회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체 수석으로 항공관광학과 이실영 학생이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학부과별 수석자로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최혁 학생 외 23명이 총장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스포츠경호학과 이정희씨가 84세의 나이로

최고령 졸업생 타이틀을 얻었다. 이정희씨는 “자녀를 뒷바라지에 미칠던 학업을 늦게나마 마치게 돼 매우 기쁘고, 학업을 응원해 준 가족 및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지난 4년간 지식과 경험을 연마하는 최선의 노력 끝에 영광스런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리더가 돼 모교를 빛내주시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량으로 성장’ 큰 그림”

우석대, 1283명 학위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의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2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42회를 맞은 학위수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남천현 총장, 오석홍 진전 캠퍼스 부총장, 조준모 총동문회장, 김종택 제7공수특전여단장, 김종찬 제35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신경철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 졸업생의 학위 취득을 축하했다. 이날 학사 1,058명, 석사 94명, 박사 131명 등 총 1,283명이 학위를



예를 안았다. 또한 대학원장상과 공로상·봉사상·특별상·총동문회장상·제7공수특전여단장상·제35보병사단장상·해병대사령관상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대학에서 부여받은 우석인 만의 DNA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원하고,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천현 총장은 “꿈과 패기를 잃지 않는 자랑스런 우석의 동문으로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량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예를 안았다. 또한 대학원장상과 공로상·봉사상·특별상·총동문회장상·제7공수특전여단장상·제35보병사단장상·해병대사령관상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대학에서 부여받은 우석인 만의 DNA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원하고,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천현 총장은 “꿈과 패기를 잃지 않는 자랑스런 우석의 동문으로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량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나이스 급여 활용 업무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23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수퍼스타홀에서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 정비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급여시스템 활용을 앞두고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인사기록 정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사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나이스 교육공무직원 인사 매뉴얼과, 2024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르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나이스 급여 활용과 제증명 즉시 발급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